

“함께 느끼고 귀를 기울이며, 음악친구가 되는 시간”

무안교육청 특수교육센터, ‘어울림 오케스트라’ 개강 악기 6개 영역 구성...매주 토요일 2시간씩 운영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근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께 느끼고 귀를 기울이며, 음악친구가 되는 시간”을 주제로 ‘2020.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를 개강하였다.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악기 6개 영역(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트럼펫, 플루트, 타악기)으로 구성되어,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운영한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2020.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 운영 방향 안내, 악기별 강사 소개 후 악기별 강사 중심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을 준수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한 학부모는 “2019. 무안 어울림 오케스

트라 나눔의 날 연주 발표회를 보고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보였고

함께 참여해 보니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아졌다. 그래서 올해도 더 나은 성장을 보고 싶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재철 교육장은 “개별화 맞춤형 악기 지도를 시행하여 장애 학생의 재능 발견 및 문화예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더 나아가 장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순천대, 학생상담센터 열린공간으로 새출발

소통 공간 조성위해 학내 기초교육관으로 확장 이전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학내 학생회관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학생상담센터를 최근에 학내 기초교육관 4층으로 확장·이전하고 최근 오후 3시에 개소식을 갖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 참석한 고영진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 및 센터

관계자들과 포레 상담자 등은 순천대 학생상담센터 시설 사찰과 상담 프로그램 체험을 하면서 새출발을 축하했다.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기초교육관(건물번호:E2)에 새롭게 문을 연 순천대 학생상담센터는 접수면접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

실 등의 분리 공간을 갖추고 10명의 상담원이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 상담, 포레상담 등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확장·이전 과정에서 새롭게 마련한 매체(모래놀이 치료 도구, 집단상담실 영상 시스템 등)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학생상담센터의 역할은 그 전보다 더 확장되고 세밀해질 수밖에 없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전문 심리 상담과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상담센터가 학생들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점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 목적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관내 급식 실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여름철 학교 급식 식중독 등의 위생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서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은 학교급식 현장점검단과 함께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 검수, 조리 과정, 급식 설비·기구 세척 및 소독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다. 또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생활관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줄서기·소독제 사용·배식 방법 등도 지도한다. 조인호 기자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식 식중독 등의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광주 학교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슬기로운 가족영어생활을 위한 즐거운 캠프

화순교육지원청 화순외국어체험센터에서는 최근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1학기 가족영어캠프를 철저한 생활 방역 속에서 진행하였다. 가족영어캠프는 학기 중 외국어체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을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실시하는 영어 프로그램으로 연 6회 총 50가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계절’을 주제로 잔디 인형 만들기, 피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영어가 자연스럽게 내재화되도록 구성하였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평소에 바빠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와 영어도 즐겁게 배우고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아이들이 외국어체험센터 체험을 기다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가족영어캠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즐거운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가족애를 증대시키고, 외국어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어 교육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청암대, 현업 웹툰작가와 함께하는 웹툰콘텐츠과 신설

“학력보다 실력이다”... 웹툰작가 위한 특성화학과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정보 트렌드로 떠오르는 웹툰 관련 플랫폼의 콘텐츠를 창작하는 웹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웹툰콘텐츠과를 신설한다.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웹툰콘텐츠과는 30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웹툰스토리텔링, 웹영상, 웹장자, 캐릭터디자인, 캘리그라피, 1인크리에이터 등 웹툰 콘텐츠 분야에 필요한 현장중심의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웹툰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현업작가를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졸업 후 즉시 취업하고 웹툰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웹툰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학과를 신설하고 전문가양성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암대는 현장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1인 1작가 멘토링, 1인 1웹툰기업 현장실습, 웹툰공모전 도전, 웹툰작가 데뷔 및 취·창업 지원’ 등 웹툰콘텐츠제작실을 갖추고 최신 기종의 PC와 개인별 액

정타블렛을 완비하고 창작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웹툰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관심을 반영하듯 순천시에서 웹툰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웹툰콘텐츠글로벌센터를 개소하고 웹툰 체험시설과 웹툰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전남 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리쇼어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대 2년간 취업을 보장하여 웹툰 신진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